

地域間 粟 流動의 空間的 形態

韓 柱 成*

◀目 次▶

1. 序 論	(1) 自由流通米의 流通經路
2. 粟 流動量과 流通形態別 構成比의 地域的 分布	(2) 自由流通米의 地域間 流動形態
(1) 粟 流動量의 地域的 分布	4. 淸原郡 自由流通米 流動의 空間的 形態와 二 形成要因
(2) 粟 流通形態別 構成比의 地域的 分布	5. 結 論
3. 自由流通米의 流通經路와 地域間 流動形態	

1. 序 論

韓國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食糧인 粟의 生産量은 1966年에 3,919,280㎏, 1976年에는 5,214,963㎏으로 지난 10年間 1.33배가 增大되었다. 그러나 粟 栽培面積은 兩年度間에 1,241,590ha에서 1,214,904ha로 0.98배 減少되었다. 이러한 粟 生産量의 增大와 栽培面積의 減少 結果, 10a 當 粟 生産量은 1966年 316kg에서 1976年 429kg으로 兩年度間에 1.36배가 增大되었다. 이와같이 지난 10年間的 工業成長과 都市의 廣域化로 既存農地의 他目的 轉用으로 粟 栽培面積이 減少했는데도 不拘하고 生産量의 增大가 이루어진 것은 開發途上國에 있어 粟의 需要增大에 따른 新品種의 開發¹⁾(韓國의 境遇, 早生統一, 維新等)과 農業生産基盤의 擴充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粟 需要人口를 보면, 1966年 韓國의 人口는 29,160千名, 1976年은 34,681千名으로 兩年度間 1.19배가 增加되어 粟 生産量 增大의 倍率을 下廻하고 있다.

이러한 粟 生産量의 增大와 人口의 增加는 人

口가 增加되고 稠密한 地域에 있어서 粟의 需要가 增大되어 粟의 不足現象을 나타내며, 人口가 減少되고 稀薄한 粟 剩餘地域에서는 粟 過剩現象을 나타내 粟은 剩餘地域에서 不足地域으로 移動하게 된다. 이러한 地域內 및 地域間的 穀物輸送量²⁾은 韓國에 있어 京仁高速道路가 開通된 1968年 以後에 顯著하게 增大되었다. 即, 1966年의 穀物輸送量은 5,623千㎏으로 이중 自動車에 依한 輸送比重이 77.2%로 가장 높고 이어서 鐵道(21.8%), 船舶(1.0%)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69年의 穀物輸送量은 8,850千㎏으로 이중 自動車에 依한 輸送比重이 83.2%로 가장 높고 이어서 鐵道(15.5%), 船舶(1.3%)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穀物의 自動車에 依한 輸送比重은 近年 더욱 增大되어 1978年의 輸送手段別 比重의 境遇, 自動車가 89.9%(穀物輸送量 12,471千㎏)로 가장 높고 이어서 鐵道(9.8%), 船舶(0.3%)의 順으로, 鐵道·船舶에 依한 比重은 漸漸 낮아지고 있다.

本稿는 穀物의 輸送量 增大와 輸送手段別 分擔率의 變化에 따른 粟의 地域間 流動을 들어 當該流動의 空間的 形態를 粟 剩餘·不足의 地域의 分布와 關連시켜 考察하는 데 그 目的이

* 忠北大學校 師範大學 地理教育科 助教授(理博)

1) Thoman, R.S. and Corbin, P.B., 1974, *The Geography of Economic Activity*, New York: McGraw-Hill Book Co., p. 88.

2) 資料關係上 여기에서는 穀物輸送에 대해 分析하였다.

있다. 여기에서 쌀의 地域間 流動을 들어 分析하는 理由는 다음 3點에 있다. ① 貨物流動의 地域構造는 貨物의 性格과 重量, 商品의 生産・流通・消費의 各段階의 發達程度에 依해 主로 規定된다. 그러나 貨物流動의 分析에 있어서 이러한 點의 分析은 研究課題로 남아 있었다.³⁾ 本稿는 이 點을 把握하기 위해 農産物의 代表的인 쌀을 對象品目으로 하였다. ② 生産技術의 發達과 流通에 있어서 大量販賣體制는 消費市場의 擴大를 促進하고 消費市場의 擴大는 生産, 流通의 規模擴大의 要因이 된다.⁴⁾ 이 點에서 볼 때 韓國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食糧인 쌀은 最近 工業化와 더불어 大都市의 人口集中 現象으로 그 流動形態의 變化를 가져왔다고 生覺되기 때문에 이 點을 把握하기 위함이다. ③ 쌀은 政府 管理糧穀과 自由流通米의 두가지 流通形態를 取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가지 流通形態의 地域의 分布를 把握하기 위함이다. 이 結果, 쌀의 地域間 流動에 의한 流動形態의 形成에 介在되어 있는 形成要因을 밝히고자 한다.

本研究의 分析 對象年度는 1976年으로 이 年度는 高度經濟成長期 중 高速道路가 登場한 後의 쌀 流動狀態를 檢討하는 것을 意圖한 것이며 또한 이 年度는 農業制度 및 政策에 있어 近代化로 向한 轉換期에 屬한 年度이다.⁵⁾ 1976年 쌀 供給量은 生産・導入量 및 前年移越量을 包含하여 5,818千%이며 需要量(5,818千%)中 食糧이 74.6%, 次年移越量이 22.0%를 各各 占하고 있다.⁶⁾ 本稿에서 分析한 쌀 流動量은 農家需要量, 次年移越量 等を 除外한 搬入量 2,817千%, 搬出量 2,998千%이다.

本分析에 使用된 資料는 國立農業經濟研究所가 1978年에 發刊한 「農産物의 地域間 流通에 關한 調查報告」⁷⁾의 OD資料로 單位地域은 171個市郡⁸⁾이다.

以下, 第2章에서는 쌀 流動量과 流通形態別

構成比의 地域의 分布, 第3章에서는 自由流通米의 流通經路와 地域間 流動形態, 第4章에서는 淸原郡 自由流通米 流動의 空間의 形態와 그 形成要因을 밝히기로 한다.

2. 쌀 流動量과 流通形態別 構成比의 地域의 分布

(1) 쌀 流動量의 地域의 分布

韓國에 있어서 쌀의 商品化率은 1966年에 55.3%, 1976年에는 62.6%로 商品化率은 매년 높아져 가는 傾向을 나타내는 데 月別 販賣量으로 볼 때 收穫期 직후가 가장 많고, 7~8月의 端境期가 가장 적다. 時期的으로 이와같이 販賣되는 쌀은 地域的으로 搬出入 現象을 나타내게 된다.

여기에서 搬出・入量의 地域의 分布를 보면, 搬出・入市郡別의 쌀總搬出・入量에 對한 比率(以下, 搬出率, 搬入率이라 함)을 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먼저 1976年의 쌀 搬出率은 金堤가 市郡間 쌀 總搬出量의 2.8%를 占해 가장 높고, 이어서 益山(2.4%), 華城(2.1%), 井邑(1.9%)의 順으로 이들 4個郡의 搬出率이 쌀總搬出量의 9.2%를 占하고 있으며, 쌀搬出率의 地域的 變動係數는 0.90으로 地域的 差를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한편 搬入率의 境遇는 서울이 市郡別 쌀總搬入量의 43.7%의 比重을 占해 가장 높고 이어서 釜山(10.8%), 大邱(6.0%), 仁川(4.2%)의 順으로 이들 4個市의 搬入率이 쌀總搬入量의 64.7%를 占하여 搬出率의 地域的 分布와 다른 形態를 取하고 있다(搬入率의 地域的 變動係數는 5.86). 이와같은 搬出・入率의 地域的 分布를 市郡別 쌀 生産・消費量과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即, 1976年 쌀 生産量의 境遇, 金堤가 우리나라 쌀 總生産量의 2.2%로 가장 높은 比重을 占하고 있으며 이어서 益山・井邑(1.8%), 華城(1.7%)

3) 韓柱成, 1983, “韓國에 있어서 貨物流動의 空間的 形態,” 地理學會報, 第20號, p. 8.

4) 長谷川典夫編, 1983, 流通と地域, 大明堂, 東京, p. 1.

5) 金文植外, 1980, 韓國農業의 近代化 過程, 韓國農村經濟研究院, pp. 41~43.

6) 나머지 量은 減耗 2.5%, 種子 0.6%, 加工 0.3%이다(農業協同組合中央會, 1977, 農協年鑑, p. 62).

7) 本資料의 正確度에 대해서는 問題點이 있지만 全國의 次元에서의 地域間 쌀 流動의 資料로서는 唯一한 것이므로 地域間 쌀 流動의 基本的 資料로 使用했다.

8) 1市 2郡인 濟州道를 資料 制約上 1個單位地域으로 함.

의 順으로 쌀 搬出率이 높은 地域이 쌀 總生産量에 對한 市郡別 生産率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들 兩者間의 相關係數는 0.95). 다음으로 1976年의 쌀 消費量⁹⁾의 境遇, 서울이 우리나라 쌀 總消費量의 24.3%로 가장 높은 比重을 占하였으며 이어서 釜山(5.9%), 大邱(3.4%), 仁川(2.6%)의 順으로 나타나 쌀 搬入率이 높은 地域에서 쌀 總消費量에 對한 市郡別 消費率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들 兩者間의 相關係數는 0.99).

(2) 쌀 流通形態別 構成比의 地域的 分布

이와같은 地域的 쌀 搬出入 現象은 우리나라의 境遇 2가지 流通管理制度에 依해 販賣形態가 形成되어져 있다. 即, 政府管理糧穀¹⁰⁾(以下, 政府米라 함)과 自由流通米¹¹⁾가 그것이다. 1966年當時 쌀의 流通形態別 流通量의 比率을 보면 政府米가 13.0%, 自由流通米가 87.0%¹²⁾였으나 1976년에는 이들 兩者의 쌀 流通量의 比率은 政府米가 約 30%, 自由流通米가 約 70%를 占해 아직 自由流通米의 比率이 매우 높다.

여기에서 搬出入別로 政府米와 自由流通米의 構成比率을 보면, 먼저 쌀搬出의 境遇, 政府米와 自由流通米의 構成比는 各各 34.9%, 65.1%를 占하고 있다. 이들의 地域的 分布를 보면(그림 1), 政府米 搬出比率이 全國平均(34.9%)을 上廻하는 市郡은 寧越·旌善·三陟·丹陽·莞島·安東(市)·統營(100%)을 包含한 99個市郡으로 이들은 大體로 江原道南部, 忠清北道, 忠清南道南部, 全羅南道, 慶尙北道, 慶尙南道西部의 諸 市郡으로, 大體로 他市郡으로의 搬出率이 낮은 特色을 갖고 있다(搬出率과 市郡別 政府米 搬出構成比와의 相關係數는 -0.37).

한편 自由流通米 搬出의 比率이 全國 平均(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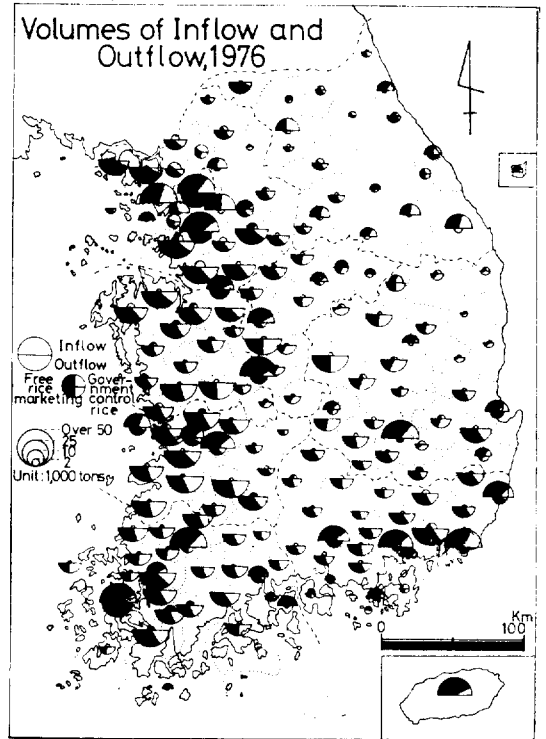


그림 1 韓國의 市郡別 政府米·自由流通米의 搬出入 構成(1976年)

1%)을 上廻하는 市郡은 서울·釜山(100%), 木浦(99.4%), 忠武(97.0%), 水原·晉州(95.%), 浦項(94.9%)을 包含한 71個市郡으로 이들 市郡들은 政府米 搬出構成比의 平均을 上廻하는 市郡들과 對照적으로 서울周邊地域인 京畿道, 江原道西部, 忠清南道의 北部의 諸市郡, 釜山周邊地域인 慶尙北道南部의 一部市郡과 慶尙南道東部の 諸市郡, 大邱周邊地域인 慶尙北道南部의 一部市郡과 慶尙南道西部의 一部市郡, 그리고 全州·裡里의 周邊地域인 完州·井邑·金堤·沃溝·益山 等이다. 따라서 이들 市郡들은 서울·

9) 1976年 쌀 消費量은 各 單位地域의 農家人口의 境遇, 1人當年 135.1kg, 非農家人口의 境遇는 1人當年 116.4kg으로 換算해서 그 量을 求한 資料를 利用했음.

10) 1948年 10月 9日에 法律 第7號로서 糧穀買入法을 制定 公布한 後, 1952~1953年間, 1957~1960年間을 除外하고 實施되어온 糧穀管理制度로서 軍糧·官營施設用·細窮民救護用·種子用·穀價調節用 및 備蓄用으로 構成된다(農業協同組合中央會, 1964, 農業年鑑, pp. 79-85).

11) 解放後부터 實施되어 온 糧穀의 全面的인 統制에서 米穀自由市場의 存立이 許容된 것은 1950年 2月 糧穀管理法이 法律 第96號로 制定 公布됨에 따라 自由流通米가 流通되게 되었다. 이 自由流通米는 商人과 農協의 流通經路를 통해 流通되는 쌀인.

12) 農業協同組合中央會, 1968, 農業年鑑, p. 120.

釜山·大邱 等의 大消費地의 周邊에 分布해 商人·農協에 依한 쌀 流通形態가 形成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쌀搬入의 境遇, 政府米와 自由流通米의 構成比는 31.0%, 69.0%를 各各 占하고 있다. 이들의 地域의 分布를 보면(그림 1), 政府米 搬入構成比가 全國平均(31.0%)을 上廻하는 市郡은 麗州·平澤·坡州·漣川·龍仁·安城·江華 等(100%)을 包含한 116個市郡으로 거의 全國에 分布하고 있다. 이와같이 政府米 搬入構成比의 平均을 上廻하는 地域이 全國의으로 分布하고 있는 것은 政府의 米價安定政策에 基因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自由流通米 搬入比率이 全國平均(69.0%)을 上廻하는 市郡은 大德(100%), 山淸(99.0%), 三千浦(98.6%), 長城(97.0%), 益山·麗水·潭陽·麗川(96.0%)을 包含한 52個市郡으로 全國에 散在되어 있는 데 이 中 24個地域이 市이다. 따라서 消費量이 많은 市에 있어서 大體로 自由流通米의 搬入構成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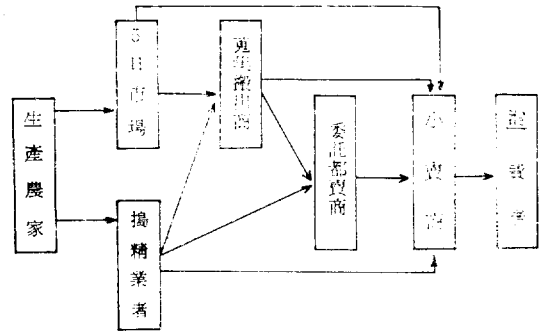
以上, 쌀搬出入의 地域의 分布에서 쌀의 地域間 流動形態를 自由流通米에 限해 分析코자 한다. 그것은 政府米의 境遇, 地域間 쌀流動을 正確히 把握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自由流通米의 流通經路와 地域間 流動形態

(1) 自由流通米의 流通經路

自由流通米의 流通經路는 商人組織과 農協의 系統出荷, 定期市를 통한 販賣形態로 나눌 수 있다(그림 2). 그러나 農協의 系統出荷 및 定期市를 통한 流通量은 낮은 比率¹³⁾을 占하고 있어 自由流通米의 大宗은 商人組織에 依한 것이다. 여기에서 自由流通米의 流通이 商人組織에 依해 主導되고 있는 理由는 다음 몇가지 點에서 指摘될 수 있다. ① 쌀 收穫期에 一時·集中出荷되는 쌀의 供給을 調節하여 年中 需給을 平準化시킬 수 있는 効率的인 流通機構가 未備해 商人이 이

(商人組織)



(農協共同組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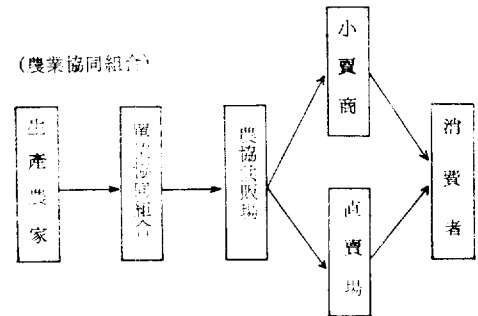


그림 2 自由流通米의 流通經路

(資料: 農協共同組合中央會, 1979, 農産物商品便覽, p. 13)

를 負擔해 왔다는 點, ② 農協이 自由流通米를 取扱하게 된 것이 1961年으로 米穀流通機構로서의 出發이 늦은 點과 系統出荷體制의 未備로 流通負擔量이 少量인 點, ③ 國家財政上 政府米 流通組織의 一時的 廢止 및 不合理性이 있었다는 點 等を 들 수 있다.

商人組織에 依한 流通經路 中에서 가장 많은 自由流通米 流通量을 擔當하고 있는 搗精業者는 蒐集·加工·移出의 機能을 同時에 擔當하고 있으며 이들은 委託都賣商에게 販賣하고 있다. 이들 委託都賣商은 地方移出商과 小賣商사이에서의 金融·仲繼機能을 擔當하고 商人으로 米穀을 引受하여 小賣商에게 販賣하거나 自己店舖에 運搬해 놓고 販賣한다.

한편 農協을 통한 自由流通米 流通은 大都市에 開設된 農協共販場을 頂點으로 하여 各單位組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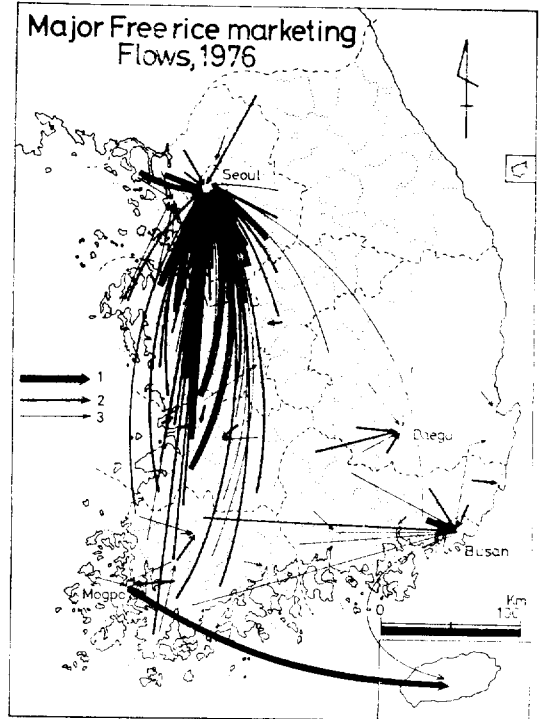
13) 1972年 農協共同組合中央會의 調査에 의하면 農協을 통한 流通量이 20.3%, 定期市로의 流通量이 6.0%를 占하며 商人組織에 의한 流通量은 45.0%임(農協共同組合中央會, 1973, 農業年鑑, p. 4).

의 系統出荷에 依해 集荷되고 있으며, 消費都市의 配給過程은 農協糧穀直賣場을 통해 消費者에게 販賣되고 있다. 끝으로 農家에서 直接 定期市에 販賣하는 自由流通米은 蒐集移出商내지는 委託都賣商에게 販賣하거나 小賣商 혹은 消費者에게 直接 販賣하기도 하는데 그 販賣量은 極少量이다.

(2) 自由流通米의 地域間 流動形態

먼저 自由流通米의 市郡間 全搬出·入量에 對한 市郡別 搬出·入率을 살펴보면, 搬出率은 金堤가 3.3%로 가장 높고 이어서 益山(2.6%), 華城(2.5%), 羅州(2.0%)의 順으로 이들 4個郡의 自由流通米 搬出率은 全搬出量의 10.4%에 該當된다. 한편 搬入率의 境遇는 서울이 市郡間 自由流通米 全搬入量의 44.1%로 가장 높고 이어서 釜山(10.0%), 大邱(6.3%), 仁川·大田(3.6%)의 順으로 이들 主要 5個市의 搬入率은 全搬入量의 67.6%를 占하고 있다.

이와같은 自由流通米 搬出·入率의 地域의 分布에서 1976年 主要市郡間 自由流通米의 流動은, 自由流通米 全流動量¹⁴⁾에 對한 各市郡間의 自由流通米 流動量의 比率을 求해 그 中 0.3%以上¹⁵⁾의 地域間流動에 對해 分析코자 한다(그림 3). 自由流通米 全流動量의 1.0%以上을 占하는 地域間流動은 金堤·井邑·安城·唐津에서 서울로의 流動, 金海에서 釜山으로의 流動, 木浦에서 濟州로의 流動¹⁶⁾을 包含한 13個流動이다. 또 0.5~1.0%의 地域間流動은 華城·扶安·天原·海南에서 서울로의 流動, 潭陽·密陽·梁山에서 釜山으로의 流動, 星州·達城·居昌에서 大邱로의 流動, 羅州에서 光州로의 流動을 包含한 38個流動이다. 또 0.3~0.5%의 地域間流動은 靈光·楊平·完州·水原에서 서울로의 流動, 長興·晉州·月城·河東에서 釜山으로의 流動, 高靈·義城·善山에서 大邱로의 流動을 包含한 42個流動이다. 따라서 1976年의 主要한 自由流通



1. 市郡間 自由流通米 總流動量의 1.0~3.0% 流動
2. 市郡間 自由流通米 總流動量의 0.5~1.0% 流動
3. 市郡間 自由流通米 總流動量의 0.3~0.5% 流動

그림 3 主要한 自由流通米 流動(1976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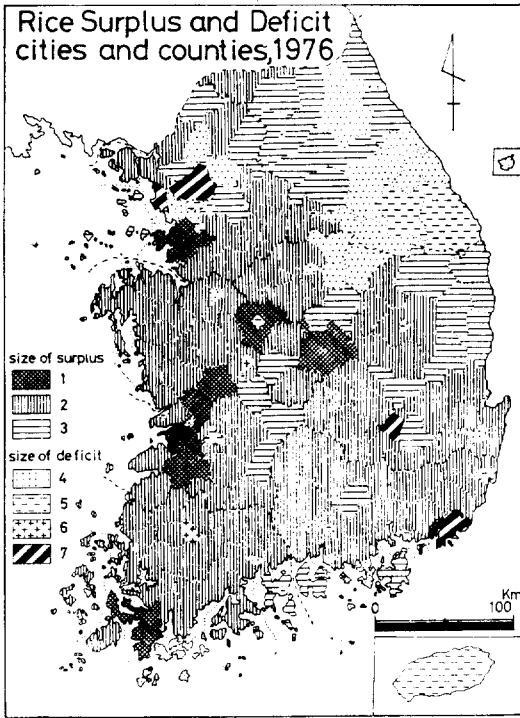
米의 地域間流動은 서울과 全國의 各市郡과를 잇는 流動¹⁷⁾이며, 釜山은 韓國의 南部地域의 市郡과 流動이 많고 다른 地方中心市는 그들의 周邊地域의 各市郡과 流動이 많다. 이러한 現象에서 自由流通米의 流動形態는 서울을 中心으로 한 全國的 流動, 釜山의 廣域의 流動, 大邱等 地方中心市의 道內流動의 流動體系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主要都市로의 自由流通米 流動이 2次的으로 主要都市에서 周邊으로 擴散 또는 그 逆方向의 階層的인 集中 流動패턴은 木浦를 除外하고 그다지 보이지 않아 自由流通米의 地域의 分業 내지는 流動의 二重構造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前述한 바와같이 쌀의 搬出率의

14) 여기에서 自由流通米 全流動量은 自由流通米 搬出·入量을 合計해서 求한 平均値임.

15) 0.3%以上의 市郡間 自由流通米 流動量은 1976年 總自由流通米의 62.3%를 占한다. 여기에서 0.3%以上의 地域間流動을 抽出·分析한 理由는 流動構造를 把握하는 데는 몇 가지 分析手段이 있으나 資料性質上 本 分析手段을 採擇하였다. 그리고 交通投資에 對한 重要性의 確立을 提示하는데 意義를 갖고 있기 때문에 本 分析手段을 採擇했다.

16) 木浦는 쌀 不足地域인데도 不拘하고 流動量이 많은 것은 쌀의 集散地로서 機能이 매우 發達해 있기 때문이다.

17) 서울과 流動이 있는 市郡數는 106個로서 總單位地域數의 62%가 서울로의 搬出地域이다.



1. 剩餘量이 50,000~100,000톤
2. 剩餘量이 10,000~50,000톤
3. 剩餘量이 10,000톤 未滿
4. 不足量이 10,000톤 未滿
5. 不足量이 10,000~50,000톤
6. 不足量이 50,000~100,000톤
7. 不足量이 100,000톤 以上

그림 4 쌀의 剩餘·不足市郡(1976年)

地域的 變動係數가 1.0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러한 自由流通米의 地域間 流動은 各地域에 있어 쌀의 剩餘·不足量과 關連된 것으로 이를 檢討코자 한다.

쌀의 剩餘·不足地域의 分布는 그림 4에서와 같이 剩餘地域은 123個市郡으로 全單位地域의 71.9%이고 不足地域은 48個市郡으로 全單位地域의 28.1%를 占해 剩餘地域數가 훨씬 많다. 이러한 剩餘·不足地域의 地域的 分布를 보면 剩餘地域은 韓國의 南西部에 分布하고, 그중 金堤의 對全國 剩餘率은 3.3%로 가장 높고 이어서 益山(2.7%), 華城(2.3%), 井邑(2.1%), 海南·尙州·論山·淸原(1.9%)의 順으로 이들 8個郡이 總剩餘量의 18.0%를 占한다. 한편 不足地域은 서울·釜山·大邱·仁川 등의 大都市와 서울

周邊地域, 北東部の 山間地域에 分布하고 있는 市郡이다. 이 중 서울의 對全國不足率은 49.1%로 가장 높고 이어서 釜山(11.9%), 大邱(6.8%), 仁川(4.7%)의 順으로 이들 4個市의 不足率이 剩餘不足量의 72.5%를 占한다.

이들 쌀의 剩餘·不足地域과 上述한 自由流通米의 地域間 主要한 流動과를 對照해 보면(그림 3, 그림 4), 不足率이 가장 높은 서울로의 自由流通米의 流動은 剩餘率이 높은 金堤·益山·井邑을 爲始해서 韓國西部地域의 各 剩餘市郡에서 流動되고 있고, 釜山으로의 自由流通米 流動은 剩餘地域인 金海를 위시해서 密陽·梁山 등의 南部地方의 各 市郡에서 流動되고 있다. 그리고 大邱로의 自由流通米의 流動은 達城·居昌·星州 등의 各郡에서 流動되고 있다. 따라서 自由流通米 流動의 空間的 形態는 쌀의 需給狀態를 여실히 反映한 것으로 主要 剩餘圈은 主要都市를 中心으로 形成되어 있다.

이와같은 大都市로의 自由流通米의 流動 중 서울로의 顯著한 流動形態는 서울의 높은 人口增加에 基因된다. 即, 1966~1975年間の 서울人口는 全國人口의 13.0%에서 19.8%로 增加되었다. 이것은 他市郡으로 부터의 轉入에 依한 社會的 增加가 主된 原因으로 1976年 全國 轉入者數의 33.2%가 서울로 轉入되어 가장 높으며 서울人口에 對한 社會人口 增加率도 當時 3.6%를 占하고 있다. 이러한 顯著한 人口增加는 쌀의 需要를 增大시켜 他地域으로 부터의 自由流通米의 流動을 促進시켰다. 即, 1966年 서울의 쌀生産量은 全國 쌀生産量의 0.5%였으나 1976년에는 0.2%로 絶對的·相對的으로 減少現象을 보임과 同時에 對全國 쌀不足率은 1966年 37.1%에서 1976년에는 49.1%로 急激한 增加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期間中 主要 剩餘地域에서 서울로의 쌀 流動量이 顯著하게 增加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淸原郡의 自由流通米 流動의 空間的 形態와 그 形成要因

以上에서 自由流通米의 地域間 流動形態를 쌀의 剩餘·不足地域과 關連시켜 檢討한 結果, 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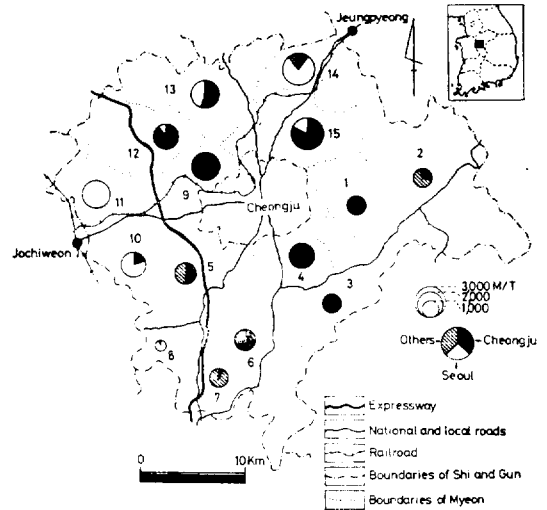
由流通米의 空間的 流動形態는 쌀의 需給狀態에 依해 形成되어졌지만 그 需給狀態는 剩餘·不足 地域에 있어서의 流通構造에 依한 것으로 본다.

本章에서는 主要한 쌀 生産地인 淸原郡에 限定해 自由流通米의 空間的 流動形態와 그 形成 要因을 流通構造의 側面에서 밝히기로 한다.

여기에서 淸原郡을 選定한 理由는 다른 主要 剩餘郡¹⁸⁾에 있어 自由流通米 搬出率은 서울이 가장 높은 比重을 占하는 데 比해 淸原郡의 境遇는 淸州市에 53.0%, 서울市에 46.9%, 仁川市에 0.1%(自由流通米 搬出量 24,683.6%)搬出하여 淸州가 가장 높은 比重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爲함이다. 또 淸原郡의 쌀 生産率은 1976年 全國 쌀生産量의 1.5%, 剩餘率은 全國剩餘量(2,640,270%)의 1.9%를 占하며, 搬入量은 136%(모두 政府米입)으로 主要 剩餘郡 중에서 가장 적다.

淸原郡에서 쌀의 不足地域인 淸州市로 自由流通米 搬出率이 가장 높은 것은 다른 主要 剩餘郡보다 隣接한 主要 消費地에 自由流通米 「販賣可能率」¹⁹⁾이 높은 데 基因된 것으로 본다. 即, 主要 剩餘郡인 華城·益山郡에서 隣接한 主要 消費地인 水原·裡里市로의 自由流通米 「販賣可能率」은 各各 38.2%, 3.1%인 데 比해 淸原郡의 境遇는 71.9%이다. 따라서 自由流通米 流動의 境遇, 隣接한 主要 消費地에 販賣할 可能性이 클 境遇에는 1次的으로 그 隣接한 剩餘地域으로 搬出率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自由流通米의 販賣形態는 淸原郡內에서 一律的인 것이 아니고 內部的 地域의 差를 나타내고 있다.²⁰⁾ 即, 淸州市에 隣接해 있는 江西·北一·南一·南二·文義·加德·玉山面 等에서는 淸州로 流動量이 많으며, 賢都·芙蓉·江外·北二面과 江內의 一部地域 即, 淸原郡의 外緣部에서는 서울로 그 流動量이 많다(그림 5). 그리고 淸州로의 流動은 淸州市의 米穀都·小賣商人에 依해 搬出되거나 農家에서 直接



- | | |
|-------------------|------------------|
| 1. 琅城面(Nangseong) | 2. 米院面(Miweon) |
| 3. 加德面(Gadeog) | 4. 南一面(Namil) |
| 5. 南二面(Nami) | 6. 文義面(Muneui) |
| 7. 賢都面(Hyeondo) | 8. 芙蓉面(Buyong) |
| 9. 江西面(Gangseo) | 10. 江內面(Gangnae) |
| 11. 江外面(Gangoe) | 12. 玉山面(Ogsan) |
| 13. 梧倉面(Ochang) | 14. 北二面(Bugi) |
| 15. 北一面(Bugil) | |

그림 5 淸原郡 自由流通米의 地域別 流動構成(1976年)
(現地調査 및 淸原郡統計年報에 依해 作成)

出荷의 形態를 取하고 있으며 이들에 依해 搬出된 쌀의 大部分은 淸州市에서 消費된다. 한편 서울로의 流動은 大部分 鳥致院·曾坪·서울의 蒐集·移出商人과 產地蒐集商人에 依한다. 이와 같이 淸州市의 周邊中心地인 鳥致院·曾坪商人에 依한 自由流通米의 서울 搬出은 淸原郡 剩餘量의 市場分割的 配置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鳥致院 商人에 依한 自由流通米의 搬出은 1960年代까지 쌀 輸送에 있어 主要한 交通手段이었던 鐵道의 影響이 作用한 것으로 우리나라 大消費地인 서울과 直接連結될 수 있다는 利點이 있었기 때문에 그 後에도 慣習化되어 形成된 것으로 본다. 이와같이 쌀 流動形態에 있어 鐵道가 그 影響을 미친 것은 日本에서도 볼 수

18) 그림 4의 剩餘量 5萬~10萬%으로, 여기에 該當하는 郡은 華城·論山·井邑·金堤·益山·尙州郡이다.

19) $\frac{\text{隣接한 剩餘地域의 不足量} - \text{政府米搬入量}}{\text{隣接한 剩餘郡의 自由流通米搬出量}} \times 100$

20) 이에 關連된 資料는 1983年 12月~1984年 1月에 걸쳐 淸原郡의 15個面과 淸州市, 鳥致院邑, 曾平邑 等の 現地 調査에 의한 것임.

있는 現象이다.²¹⁾ 또한 1970年 京釜高速道路의 開通으로 서울로의 自由流通米 流動은 더욱 圓滑하게 되었다고 본다.

以上에서 淸原郡의 自由流通米 流動은 淸州市에서 近距離에 位置한 地域에서는 主要 消費地인 淸州市로의 「販賣可能率」에 基因되어 主要 淸州市의 小賣商人에 依해 搬出이 이루어지고 淸州에서 相對的으로 遠距離에 位置한 地域에서는 淸州市의 小賣機能의 弱화로 周邊中心地都·小賣商人에 依한 서울로의 搬出에 依해 構成된 것이다.

따라서 主要 쌀 剩餘地域인 淸原郡의 自由流通米 流動은 主要 消費地인 淸州市와의 距離와 米穀 小賣機能의 發達, 淸州市 周邊의 中心地 小賣商人組織에 依해 形成된 것으로 自由流通米의 地域間流動은 都·小賣商人의 地域的 分業을 注目해야 할 것으로 본다.

5. 結 論

以上, 韓國에 있어 貨物流動의 地域構造를 把握하기 爲해 主要한 食糧인 쌀의 地域間 流動을 쌀의 剩餘·不足地域과 關連시켜 分析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1960年代 後半 以後 人口의 地域 再配置에 따라 쌀 流動量의 地域的 分布는, 搬出量의 境遇, 金堤·益山·華城·井邑郡 등이 높은 比重을 占하고 있으나 韓國 全體로 볼 때 地域的 差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搬入量의 境遇는 서울·釜山을 위시한 大都市에서 그 比重이 높기 때문에 搬入量의 地域的 差는 매우 크다.

(2) 政府米와 自由流通米의 構成比는 約 3對7로 아직까지 自由流通米의 比重이 높다. 이들 流通形態別 搬出入의 地域的 分布를 보면, 먼저 搬出의 境遇, 政府米 搬出比率이 全國平均을 上廻하는 市郡은 大體로 他市郡으로의 搬出率이 낮은 地域으로, 生産量이 적은 地域에서 政府米 搬出量이 많다. 그리고 自由流通米의 搬出量이 全國平均을 上廻하는 市郡은 서울·釜山·大邱 등의 大消費市場 周邊地域과 生産量이 많은 金堤·沃漕·井邑郡 등의 地域에서 볼 수 있어 이

들 地域에 있어 商人·農協의 搬出活動이 活潑하다.

한편 搬入의 境遇, 政府米 搬入이 全國平均을 上廻하는 地域은 全國的으로, 米價의 安定政策을 爲해 形成된 것이다. 그리고 自由流通米의 搬入이 全國平均을 上廻하는 地域은 消費量이 많은 市로 나타나고 있다.

(3) 商人組織에 依한 流通이 太宗을 이루고 있는 自由流通米의 主要한 流動의 空間的 形態는 서울과 全國의 各 市郡을 잇는 全國的 流動, 釜山과 南部地域의 市郡을 잇는 廣域的 流動, 地方 中心市의 道內流動의 體系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主要都市로의 自由流通米 流動이 2次的으로 主要都市에서 周邊으로 擴散 또는 그 逆方向의 階層的인 集中 流動패턴은 木浦를 除外하고 그다지 보이지 않아 自由流通米의 地域的 分業 내지는 流動의 二重構造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쌀生産率의 地域的 差가 적기 때문이다.

(4) 自由流通米의 地域間 流動은 쌀의 剩餘·不足地域間에 惹起되는 쌀의 需給狀態를 여실히 反映한 것이다. 特히 서울로의 顯著한 流動形態는 서울人口의 急激한 增加에 基因된 것으로 他地域으로부터의 自由流通米 流動을 促進시켰다.

(5) 主要 쌀 生産地域이며 剩餘郡인 淸原郡의 쌀 流動形態는 隣接한 主要 消費地인 淸州로의 「販賣可能率」이 높은 點, 淸州와의 距離, 淸州市의 小賣機能의 發達, 淸州市 周邊의 中心地인 鳥致院·曾坪商人組織의 發達에 依해 形成된 것이다.

끝으로 地域間 쌀 流動의 空間的 形態를 우리나라 總貨物 流動의 그것과 比較해 보면 서울·釜山이 貨物流動에 있어 卓越한 結節點의 機能을 갖고 있다는 點은 同一하나 流動의 空間的 形態는 重復되지 않는다. 即, 西部의 主要쌀 生産地域과 서울과의 結合, 南部地方諸市郡과 釜山과의 結合 등에서 流動에 依한 重層構造는 그다지 나타나고 있지 않아 地域間 相互依存이 큰 總貨物 流動의 空間的 形態와 顯著한 空間的 分離를 認定할 수 있다. 따라서 貨物流動의 地域構造는 貨物의 品目에 따라 그 流動패턴이 生産·消費

21) Eyre, J.D., 1962, "Japanese Interprefectural Rice Movement," *Economic Geography*, Vol. 38, p. 85.

(搬出入)地域과 서울·釜山 等과의 相互關係에서 形成되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點을 把握하기 爲해 他農產物 내지는 工產品을 對象으로 貨物流動의 地域構造를 檢討할 點이 今後의 남아 있는 研究課題이다. 그리고 品目別 貨物流動의

全體像을 把握하기 爲해서는 輸送機關別 流動의 空間的 形態와 輸送段階와의 對應關係 혹은 輸送機關別 分析과 全機關에 依한 分析이 또한 今後 남아 있는 研究課題이다.

The Spatial Patterns of Inter-regional Rice Flows in Korea

Ju-Seong Han*

Summary

Freight flows reflect the economic and transport systems through demand-supply activities. In the past, a limited number of studies for each commodity were analyzed in the analysis of freight flows. And among these studies, the distributional structure for each commodity was analyzed in a limited number of studies.

The aims of this paper are to clarify the composition ratio in the distributional types of rice, to clarify the patterns of free rice marketing flow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tterns of free rice marketing flows and surplus (deficit) region, and to clarify the patterns of free rice marketing flows and the formative factors in Cheongweon Gun (county).

Data for this study are inter-regional origin and destination surveys (171×171) which were conducted by the National Agricultural Economics Institute during the periods from May 1st to October 30th in 1977. This year along with the modernization of the agricultural system the transport system has also chang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expressway.

The volumes of shipping of the rice received were classified into government controlled rice and free rice marketing and were analyzed. Major flows of over 0.3% flows proportional to total flows rice marketing flows also were analyzed. Then, the patterns of free rice marketing flows were compared with the volumes of surplus

(deficit) of rice in each region (cities and counties). The formative factors of the patterns of free rice marketing flows in Cheongweon as a major production and surplus county were analyzed by interview surve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After the mid-1960s, the volumes of shipping of rice in each region was similiarly but the volumes of rice received appeared to be the regional difference as a result of population redistribution.

(2) The composition ratio for government controlled rice and free rice marketing on the national level was 3 to 7 in 1976. The shipping regions exceeded the ratio of the national average (34.9%) of government controlled rice in each shipping region as shown in the region of little production. The shipping regions exceeding the ratio of the national average (65.1%) of free rice marketing in each shipping region appear in the peripheral regions of larger demands cities (Seoul, Busan and Daegu etc.) and appear in the counties (Gimje, Oggu and Jeongeub) of major produ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volumes of arrivals, the regions exceeded the ratio of the national average (31.0%) of government controlled rice in each region receiving rice. These regional patterns result from the policy of stable rice prices. The regions receiving rice exceeded the ratio of the (69.0%) of free rice marketing appear in cities (Fig. 1).

(3) The spatial patterns of maior flows for

Geography, Korean Geographical Society, No. 29, pp.37-47, 1984.

* Assistant Professor (Doctor in Scienc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free rice marketing which showed a majority distribution by merchant organizations consist of national flows between Seoul and each region in Korea, of regional flows between Busan and each region in southern districts, and of intra-provincial flows between larger cities and each region (Fig. 3). But with the exception of Mokpo these free rice marketing flows are not distributionally diffused from larger cities to peripheral regions. Accordingly the regional specialization and the dual structure of free rice marketing flows do not appear. This may result from the fact that there were no regional in rice production.

(4) The inter-regional flow of free rice mar-

keting were conspicuous under the conditions of supply/demand (Figs. 3 and 4). Inter-regional flows particularly between Seoul and each region in 1976 were noticeable (Fig. 3). These phenomena were caused by a rapid population growth in Seoul.

(5) In Cheongwon the maior production and surplus county, the spatial pattern of inter-regional rice flows were caused by the ratio of potential marketing, distance between Cheongju city and each Myeon in Cheongw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function of rice retailing and of a merchants organization in peripheral places (Jochiweon and Jeungpyeong) of Cheongju city (Fig. 5).